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 연구:
성경 중심적, 사회학적, 교회 중심적 측면을 중심으로
*An Appraisal of Dr. Sang Gyoo Lee's Study of
Early Christianity —Focusing on Its Biblical,
Sociological, and Ecclesiastical Aspects*

우 병 훈

고신대 신학과 조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 251
2.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의 성경 중심적 성격 | 252
 - 2.1. 성경의 이해를 돕는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 | 252
 - 2.2. 성경적 신앙을 돕는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 | 258
3.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의 사회학적 성격 | 262
 - 3.1. 이상규 박사와 에드윈 저지와의 만남 | 262
 - 3.2. 사회학적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 시도 | 266
 - 3.3. 사회학적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를 넘어서 | 274
4.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의 교회 중심적 성격 | 277
 - 4.1. 이상규 박사가 경험한 교회들 | 277
 - 4.2. 이상규 박사의 교회론의 정통적 성격 | 279
 - 4.3.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와 한국교회 | 281
5. 나오면서: 이상규 박사와 고신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 284





요약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 연구: 성경 중심적, 사회학적, 교회 중심적 측면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상규 박사는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궤적을 남겼다.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성경 중심적이다. 한편으로 그의 연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 그가 제시한 프로소포그래피(인물연구)는 신약 성경을 다각도로 이해하게 도와준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연구를 통해서 성경적 신앙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초기 기독교회에 나타났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결연한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인 본연의 자세를 깨닫게 해 준다. 둘째,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사회학적 방법론을 잘 활용하였다. 그는 다이스만의 테제에 도전했던 에드윈 저지의 연구에 큰 도움을 받아, 초기 기독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공동체였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집회처소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통해서 가정교회에서부터 바실리카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잘 묘사하였다. 그는 또한 사회학적 연구가 지니는 한계성을 신학적 안목으로 넘어서는 독자성 역시 보여준다. 셋째,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교회 중심적이다. 그가 지닌 교회론은 성경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론이다. 그는 중요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잘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정통적인 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모습을 잘 기술하였다. 무엇보다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한국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과 함의들을 담고 있는데, 이 점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신학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학문 태도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이상규 박사는 고신신학에 바탕을 두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 일한 탁월한 교회사가이다.

*An Appraisal of Dr. Sang Gyou
Lee's Study of Early Christianity
—Focusing on Its Biblical,
Sociological, and Ecclesiastical
Aspects*

주요어

이상규, 초기 기독교회사, 성경 중심성, 사회학, 교회 중심성, 한국교회, 고신신학

Abstract

An Appraisal of Dr. Sang Gyoo Lee' s Study of Early Christianity —Focusing on Its Biblical, Sociological, and Ecclesiastical Aspects

Prof. Dr. ByungHun Woo

The church historian, Dr. Sang Gyoo Lee, left an important footprint in the study of early church history. His research has thre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First, Dr. Lee's study of the early church is biblical on two points. On the one hand, his study provides substantial information on the New Testament. The prosopography in his study helps us to understand the New Testament from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On the other hand, his study inculcates in us a true biblical faith. It emphasizes love, mercy, and the spirit of martyrdom to inspire the way true biblical Christians should be.

Second, Dr. Lee's study of the early church connects well with modern sociological methodology. Based on Edwin Judge's research that challenged Deissmann's theses, Dr. Lee argues that the early church was a community with mixed social status. He finely and creatively delineates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early church's gathering places from "domus ecclesiae" to

basilica. He also points out the weakness of modern sociology in the study of the early church from an independent viewpoint.

Third, Dr. Lee's study of the early church is ecclesiastical. His view of the church is both biblical and universal. He depicts orthodox faith and theology from the works of important church fathers. Most of all, his research of the early church contains concrete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for modern Korean churches, which reflects his basic academic attitude to serve the kingdom of God and his church. In sum, Dr. Lee is a brilliant church historian who works for the Korean church based on Kosin theology.

Keywords

Sang Gyoo Lee, Early Church History, Bible-Centeredness, Sociology, Church-Centeredness, Korean Church, Kosin Theology

1. 들어가면서

이상규 박사의 신학 세계는 넓고 깊다. 그의 연구 및 저술 분야는 성경(설교), 초기 및 16세기 교회사, 한국교회사, 고신교회 및 교단사(敎團史), 호주장로교회와 선교사, 부산경남지방 기독교연구 등 넓은 영역에 걸쳐 있다.¹⁾ 그는 2017년을 8월을 기준으로 무려 24권의 단행본, 26권의 공저, 5권의 편저, 5권의 역서를 출간했다. 그리고 170편을 상회하는 학술논문과 15편의 번역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였다.²⁾ 한 사람의 학자가 이렇게 많은 저작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흔치 않은 일이다. 이상규 박사가 남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볼 때에도) 이 엄청난 연구물들은 그가 일평생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단속하여 오직 학문의 길만을 줄곧 걸어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³⁾

필자는 이상규 박사의 신학세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기에, 이후에 있을 논의들에 대한 일종의 도입 격으로 이 논문에서는 우선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만을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그가 이 분야에서 남긴 저작도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며 그것을 하나의 소논문에서 자세히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초기

-
- 1) 이상규 박사의 주전공은 교회사이므로 교회사와 관련된 연구 주제만 나열했다. 따라서 그가 초기에 행했던 조직신학적 연구(“조직신학 연구방법론,” “현대신학의 종말론 이해,” “몰트만의 신학에 관한 연구” 등등)는 제외했다. 이하 각주에서 언급되는 작품들은 저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상규 박사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 박사”란 표현도 역시 이상규 박사를 지칭한다.
 - 2)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한국장로교신학회에서 “이상규 박사 은퇴 기념 논문집”으로 출간한 『장로교회와 신학』, 제 13집(2017), 5-14쪽을 보라. 이를 좀 더 보충한 목록은 본서인 『고신신학』 제19집(2017년)에 실린 “저작 목록”을 보라.
 - 3) 그렇다 하여, 그가 오직 상아탑에만 갇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가 현실 교회와 사회 현안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가 하는 것은 아래의 글에서 밝혀질 것이다.

기독교회사에 대해 이상규 박사가 남긴 두 권의 저작인,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와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⁴⁾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는 “실험에 근거한 자연과학 논문처럼 단문의 신학 논문”을 시도한 것이다. 일반 대중과 학자층을 동시에 겨냥한 이 책에서 이 박사는 “신학적 단문을 통해서도 기독교 전통과 학맥을 관통하는 학구(學究)와 관후(寬厚)함을” 지니는 작품들을 선보였다.⁵⁾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는 『헤르메네이아 투데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22편의 소논문들을 모아 놓은 책인데, 한편 한편이 초기 기독교회와 그 배경에 대한 주옥같은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⁶⁾ 이 두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색이 있다면, 성경 중심적이며, 사회학적이며, 교회 중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순서대로 글을 전개해 나가면서 초대 교회사에 대한 이상규 박사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의 성경 중심적 성격

2.1. 성경의 이해를 돕는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

16-17세기의 역사적 개혁주의 정신을 이어가는 “고신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성경 중심적 신학을 추구한다는 데에 있다.⁷⁾ 고신의 신학자로서

4) 자세한 서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상규,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6);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서울: SFC, 2016).

5) 이상의 인용들은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6에서 발췌.

6) 이 논문들이 『헤르메네이아 투데이』의 몇 호에 게재되었는가 하는 정보는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478에 나온다.

이상규 박사 역시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신학을 지향한다. 그가 남긴 첫 저작이 『성경공부의 이론과 실제』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⁸⁾ 평소에 설교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는 설교집이나 설교와 관련한 학술적 논문들도 여럿 출간하였다.⁹⁾

성경 중심적 신학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은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가령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에 실린 글들 가운데 성경 연구와 관련된 글들의 제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새로운 성경 독서법, 성경은 창문(window)인가, 거울(mirror)인가?
파로이코이(“나그네”); ‘형제’, ‘자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왜 라틴어와 아랍어가 다수 사용 되었을까?; 어떻게 요한은 로마 정치에 대한 인식이 깊었을까?; 에클레시아는 교회(敎會)인가 교회(交會)인가?;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인가, ‘가이사의 친구’인가?; 비뢰는 최초의 간호사였는가?;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했는가?; 예수님은 헬라어를 아셨을까?; 예수님은 라틴어를 아셨을까?;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아셨을까?; 옥시 링크스 파피루스(Oxyrhynchus papyri); 나그함마디(Nag Hammadi) 사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공동체의 신분과 계층 구조; 로마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로마제국 하의 노예제도와 기독교; 파라볼

7) 이에 대해서는 이신열·우병훈, “고신의 교의학자들: 박운선, 이근삼, 이환봉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8 (2016년): 171-212(특히 190, 205, 211-12)를 보라.

8) 『성경공부의 이론과 실제』(총회교육위원회, 1986).

9) 아래의 문헌들을 보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설교』(부산: 한국교회와 역사연구소, 2006); 『구약의 메시지』(킹덤북스, 2013); “한국교회에서의 설교,” 『개혁교회의 정로』(허순길박사 은퇴기념 논문집, 1999. 3), 201-228; “한국교회의 설교,” 『기독교신학저널』 13(2007. 가을호), 79-113; Stuart Gill(이상규 번역), “하나님은 나를 나팔로 삼으셨느니라: 설교자로서의 존 낙스,” 『교회사학연구』 2(2002); Koos van Rooy(이상규 번역), “율법주의적 설교와 기독교론적인 설교,” 『부경교회사연구』 23(2009.11), 107-118.

라노이(“위험을 무릅쓰는 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육체적 돌봄과 자선 활동.¹⁰⁾

이 글들 모두가 역사신학적인 동시에 성경 이해와 매우 관련이 깊은 연구물이다. 이상에서는 20개의 글만 뽑았지만 사실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에 실린 글 모두가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성경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고신신학”을 지향하는 교회사가(敎會史家)는 그 기본 태도에 있어서 성경 중심적이어야 함을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 가운데 성경의 내용을 더욱 잘 밝혀주는 연구물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에 실린 “바울공동체의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대한 사회·역사학적 연구인데 이것은 교회사가가 성경 읽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작(秀作)이다.¹¹⁾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알고 있었거나 그와 동역했던 이들로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약 여든 명에 이른다.”¹²⁾ 그 중에서 26명이 로마서 16장에 거명되어 있다. 이 박사는 이들에 대한 사회학적이고 역사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초기 바울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의 인종, 가족 배경, 직업, 사회적 신분과 지위 등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주는 소위 “프로소포그래피”(prosopography; 인물연구)를 시도하였다.¹³⁾ 그리하여 그는 세 개 이상의 가정교회들로 이뤄진 로마교회가 신분상으로는 노예, 해방노예, 자유민으로

10)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7-8

11) “바울공동체의 사람들,”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13-35.

12) “바울공동체의 사람들,”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14.

13) “바울공동체의 사람들,”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16-17.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인종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고, 출신 지역상 상당히 다채로웠으며, 또한 다수의 여성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¹⁴⁾ 이런 분석은 로마교회를 이해하고 또한 로마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상규 박사는 “바울공동체의 사람들”의 후반부에서 뵈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루포, 가이오, 그리스보, 에라스도 등에 대하여 자세한 인물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¹⁵⁾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는 로마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가진 교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의 후원과 지원 속에서 사역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상규 박사가 쓴 “로마제국 하의 노예 제도와 기독교”와 “노예제도와 기독교”도 역시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들이다.¹⁷⁾ 이 박사는 우선 신약 성경에 노예와 관련한 많은 본문들이 있음을 지적한다.¹⁸⁾

14) 이 박사는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거명된 26명 가운데 남성이 18명이고, 여성이 8명이라고 한다. “바울공동체의 사람들,”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18-19(이 박사는 “유니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치 않다고 하지만 여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둬; 앞 논문 28). 더글라스 무 역시 여성리더십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로마서 16장에서 7절의 “유니아”를 포함하여 여성이 9명 거명되었다고 보지만, 그 구절에서 “사도”를 “넓은 의미의 사도” 즉 “순회 전도자”로 이해한다. 더글라스 무, 『NICNT 로마서』, 손주철 옮김(서울: 솔로몬, 2011), 1232-1233, 1238를 보라.

15) “바울공동체의 사람들,”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22-35.

16) 무, 『NICNT 로마서』, 1237-38. 존 스토틀트는 “이질성은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단언한다. 존 스토틀트, 『로마서 강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 BST 시리즈』, 정옥배 옮김(서울: IVP, 1996), 530.

17) “로마제국 하의 노예 제도와 기독교,”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98-102;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7-51. 이 두 글은 비슷한 주제를 다루지만, 후자가 보다 많은 최신 연구와 내용 및 통찰을 담고 있다.

18)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8. 그는 “백부장의 종(마 8:5-13, 눅 7:1-10), 대제사장의 종(마 26:51, 막 14:47, 눅 22:50, 요 18:10, 18, 26), 식사 시중을 드는 종(눅 17:7), 옷장을 관리하는 종(눅 15:22), 주인의 전갈을 알리는 종(마 22:3-10, 눅 14:17-24), 재산을 관리하는 종(마 24:45-51, 눅 12:42-46), 주인으로부터 투자 자본을

그에 따르면, 주전 1세기와 주후 1세기 사이는 로마에서 노예의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¹⁹⁾ 에버릿 퍼거슨(Everett Ferguson)은 로마시의 거주자 5명당 1명, 곧 로마시의 인구의 20%가 노예였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²⁰⁾ 어떤 이는 로마시 인구 100만 명 중 노예 인구는 30-35%에 달할 정도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²¹⁾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VIII.ii)에서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이며, 도구는 생명 없는 노예이다.”라는 말을 남겼다.²²⁾ 이처럼 당시의 노예는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²³⁾ 노예들의 절대 다수는 전쟁 포로들이었다. 그들은 출신 국적이 다양했으며 수행하는 일도 다양했다.²⁴⁾ 로마인들은 노예들을 철저하게 통제했으며, 노예들의 반란을 두려워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노예에게 자유인과 다른 확실적인 복장을 입히자는 제안이 상정되었으나, 원로원의 반대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 그럴 경우 노예들 스스로가 그 다수성(多數性)을 인지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²⁵⁾

이상규 박사는 로마의 노예 제도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자료들을 신약 연구에 접목시킨다. 그는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도시 노예들이

받은 종(마 25:14-30, 눅 19:12-27)” 등이라든지,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마 10: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마 6:24, 눅 16:13) 등과 같은 말씀’이라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0:26, 막 10:43)와 같은 경구”도 당시의 노예제도를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임을 지적한다. “서신서에서도 ‘자유인과 노예’라는 맥락에서 비유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구체적인 구절들(롬 6:6, 14:4, 갈 4:3, 9, 딤후 3:3, 벧전 2:18, 벧후 2:19 등)을 열거한다.

- 19)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9.
 20) Everett Ferguson,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Grand Rapids, MI: Eerdmans, 1987), 46;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45에서 중인(重引).
 21) “로마제국 하의 노예 제도와 기독교,”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99.
 22) “로마제국 하의 노예 제도와 기독교,”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99n15.
 23)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9-40.
 24)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40-41.
 25)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42-43; Seneca, *De Clementia*, 1.24.1에 근거함.

많았다고 주장한다.²⁶⁾ 그리고 바울이 유독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한 것은 로마교회 교인의 다수가 종이였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한다. 특별히 이들이 이곳저곳으로 팔려간 것이 1세기가 다 가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소개된 배경이 되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²⁷⁾

이 주제는 또한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반대했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²⁸⁾ 이 박사의 결론은 비록 “바울이나 초기 기독교가 사회 개혁에 무관심했다 하더라도 사회 개혁이나 사회구조의 재편(restructuring)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²⁹⁾ 초기 기독교가 “사회구조나 제도의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보편적인 사랑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상당히 균형 잡힌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³⁰⁾

이상에서 보듯이,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 연구는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건설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살피는 방법론을 모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것은 성경 중심의 신학을 지향하는 교회사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26) “로마제국 하의 노예 제도와 기독교,”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102;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46.

27) 이상의 견해들 모두 “로마제국 하의 노예 제도와 기독교,”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102 참조.

28)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48-51.

29)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49.

30)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50-51.

2.2. 성경적 신앙을 돕는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을 세우는 일에도 도움을 준다. 대표적인 연구가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이다.³¹⁾ “간호와 치유는 인간에 대한 가장 소중한 봉사”라고 보며, “의학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이는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예수였다”는 프로본샤(Provonscha)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이 박사는 초기 기독교회는 어떻게 이 봉사를 수행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³²⁾ 흥미로운 것은 그가 간호사(看護史) 학자들의 연구를 교회사 연구와 결합시킨다는 점이다.³³⁾

초기 기독교회의 자선활동과 봉사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는 “신속한 복음의 확장”의 이유가 된다.³⁴⁾ “사랑과 자비, 선행과 봉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했던 가치이자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다.³⁵⁾ 초대 교회는 병든 자를 간호하고 치료해 주며,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방문하여 간호해 주고 물질로 위로하였다. 이 일을 집중해서 감당했던 이들이 집사와 과부들과 여집사들이었다.³⁶⁾ 이 박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과 교부 문헌들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여러 직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31)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97-114. 또한 “뵈뵈는 최초의 간호사였는가?,”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46-50도 참조하라.

32)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97, 98에서 각각 인용함. 프로본샤는 의사이며, 그의 주장은 J. W. Provonscha, “The Healing Christ,” *Current Medical Digest* (Dec. 1959), 3에 실려 있다.

33)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99-100. 이처럼 이상규 박사의 연구에는 교회사, 교의사, 사회학, 간호학, 교의학 등이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방식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34)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02, 101n8.

35)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02.

36)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03.

뵈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히폴리투스, 쿠아드라투스, 유스티누스, 이레나이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언급들도 제시한다.³⁷⁾ 이어서 이 박사는 초대 교회의 이러한 관습이 병원이 설립되고, 목회에서 간호와 치유사역이 배제되면서 사라져 간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 그리고 그런 치유 중심의 목회를 지향한 그룹들이 계속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을 지적한다.³⁸⁾

그의 이러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초대 교회의 간호와 치유사역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적 교회의 모범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브루스 윈터(Bruce W. Winter)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 박사는 “기독교적 가치에 철저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공동체는 항상 그 시대의 사랑과 자비의 시혜자들이었고, ‘공공의 유익’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삶의 양식”이었다고 주장한다.³⁹⁾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적 삶의 양식은 “위난자들, 약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고 치료해 주는 자비의 사역”임을 역설한다.⁴⁰⁾ 이것은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가 단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적 기독교의 모습을 제시하는 데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라는 제목을 가진 연구도 역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⁴¹⁾ 이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다

37)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05-11. 한편, 뵈비를 최초의 방문 간호사로 여기는 견해가 있지만, 이상규 박사는 이를 확인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앞 글, 105-6).

38) 그가 제시하는 그룹들은 신사고운동(New Thought),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인데, 이런 나열을 통해서 오히려 정통에 속하는 그룹들은 간호와 치유사역을 등한히 했음을 질타하는 듯하다.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13.

39)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13.

40)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13-14.

41)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37-58.

(Semen est sanguis christianorum).”라는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을 도입부에서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한다.⁴²⁾ 그는 “순교자”를 뜻하는 “마르튀스”는 원래 “증인”이라는 의미였음을 지적하면서, “순교자들이 다 증거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⁴³⁾ 성경과 교부 문헌에 나타나는 “마르튀스”, “마르튀리온”의 용례를 추적한 다음, 초기 교회가 이해했던 순교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였다고 주장한다.

- 첫째, 그 죽음이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죽음이어야 한다.
 둘째, 그 죽음은 복음 증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셋째, 복음과 진리를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죽음이어야 한다.⁴⁴⁾

특히 이 박사는 순교자들의 용감한 태도와 확고부동한 인내는 기독교적 덕성의 증거였음을 지적한다. 그는 초기 기독교에서 순교란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증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로 간주되었다고 적는다.⁴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교의 이유이다. 이 박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인용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35편 23절 주석에서 “[죽음이라는] 형벌이 순교자를 만들지 않고, [그 죽음의] 이유가 순교자를 만든다(Martyrem non facit poena, sed causa).”라고 했던 것이다.⁴⁶⁾ 그렇다면 이후에 “말과

42) Tertullian, *Apology*, 50;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37에서 재인용.

43)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39.

44)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48. 이 박사는 순교자의 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천명 이하였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적는다(앞글, 352).

45)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45.

46) Augustine, *Letters*, 89.2.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

행위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진리를 증거하는 이는 순교자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했던 오리게네스나, “한 순간에 고통을 당하는 이는 오직 한번 승리한다. 그러나 언제나 고통 중에 머물고 끊임없이 고통과 투쟁하는 이는 매일 새로운 순교의 관을 쓴다.”라고 했던 키프리아누스도 역시 순교의 의미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다. 이 박사는 복음적 삶, 곧 청빈, 순종, 정절 등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도 일종의 영적 순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⁴⁷⁾ 바로 여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도전하는 지점이다. 그는 종교적 자유와 관용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 바를 관철하려고 할 때, 박해가 없을 수 없”으며, “다만 박해의 양상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⁴⁸⁾ 예를 들어, 사회적 부조리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희생자 혹은 순교자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이 박사는 정치범으로 죽은 본회퍼나 흑인해방운동을 위해 죽은 마틴 루터 킹의 경우를 제시한다. 이 박사의 주장의 요점은 본회퍼나 마틴 루터 킹을 순교자로 떠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주장은 “순교 개념은 오늘의 상황에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⁴⁹⁾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순교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 박사는 성경적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성경적이다. 첫째로, 그의 연구는 성경의 내용을 더 잘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그의 글을 읽노라면 기존의 성경 연구서나 설교에서 쉽게 듣지 못했던 성경 관련 지식들을 얻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연구할

사회』, 348에서 재인용.

47)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49.

48)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58.

49)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58.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둘째로, 그의 연구는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글에서 이 박사는 “철학적으로 정리되거나 신학화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초기 기독교의 삶과 실천은 원형적인 그 무엇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 나를 유혹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⁵⁰⁾ 그에게 있어서 초기 기독교의 삶과 실천은 성경적인 참된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내지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지향했던 신앙의 길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보여주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고자 했기 때문이다.⁵¹⁾

3.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의 사회학적 성격

3.1. 이상규 박사와 에드윈 저지와와의 만남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가 성경 연구와 성경적 신앙 형성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의 연구가 마냥 “피상적인 경건주의”로

50) 2016년 4월 26일자로 그가 쓴 “내가 살아온 날들(Apologia pro vita sua)”에서 인용함.

이 글은 그가 필자에게 직접 보내준 것인데, 아직 출간되지는 않았다.

51) 박용규, “교회사가 이상규 교수의 학문세계,” 『장로교회와 신학』, 제 13집(2017), 18-19에서도 역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이상규 교수에게서 필자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술하거나 기술한 논고 속에 담겨진 사상이나 신앙과 그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 복음의 가치를 따라 그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드물다. ...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나 발표할 때는 물론 그와 개인적 교류를 나눌 때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였다. 그래서 신학적 입장이 달라도 그는 같은 신학 노선에 있는 사립들이나 다른 신학 노선에 있는 학자들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 모른다.”

흐르거나 “학술적 연구를 도외시한 일종의 신앙 에세이”처럼 저술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상급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것은 단지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다. 연세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권평 교수 역시, “학문 연구와 역사 서술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이상규 교수의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는 그의 안목과 능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초대교회 혹은 초기 기독교 역사 이해에 무척이나 훌륭한 길라잡이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⁵²⁾

특별히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와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의 경우에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학문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규 박사와 에드윈 저지(Edwin Judge)와의 만남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박사는 2002-2003년에 호주 시드니의 메쿼리대학교 고대문헌연구소 및 초기 기독교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때 에드윈 저지를 만났는데, 이에 대해서 이 박사는 “거의 격주로 그[에드윈 저지]와 만나 나눈 학술적 대화는 초기 기독교에 대한 사회사적 안목을 갖게 했고, 이 때 얻은 영감으로 두 권의 책을 썼다. 한권이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이고, 다른 한 권이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이다.”라고 회술(回述)한다.⁵³⁾ 이 박사는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의 특징이 “초기 기독교를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⁵⁴⁾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이런 접근이 초기 기독교회의 실상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에드윈 저지 교수로부터 얻은 영감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지 교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한다.⁵⁵⁾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에드윈 저지와

52) 권평, “기독교 이해의 길라잡이: 이상규의 『초기기독교와 로마사회』,” 『기독교사상』 (2016년 11월호)에서 인용함.

53) “내가 살아온 날들(Apologia pro vita sua)”에서 두 책의 서지 사항을 제외하고 인용함.

54)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0(저자 서문).

55)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0(저자 서문).

의 만남은 이 박사로 하여금 초기 기독교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해 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에드윈 저지는 호주 출신 로마사 전공의 고대사학자이다. 저지에 대한 소개와 사회학적 고대 기독교회사 연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이 박사의 글에 나온다.⁵⁶⁾ 고대 기독교회사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란 초기 기독교의 신학과 삶을 그 교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빛으로 읽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미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를 비롯한 사회학자들이 기독교를 이런 관점에서 읽으려고 시도했다.⁵⁷⁾ 사회학적 접근에 대해 이 박사는 “교회와 그 신학을 신학사적 또는 교리중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려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런 경향성은 신약연구와 초기 기독교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교리사 혹은 역사신학 전 분야의 연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⁵⁸⁾

이 박사에 따르면, 신학과 초기 기독교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1920년대부터 셸리 케이스(Shirley Jackson Case, 1872-1947)와 셔일러 매튜스(Shailer Mathews, 1863-1941) 등 소위 ‘시카고 학파’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이후에는 에른스트 로마이어(Ernst Lohmeyer), 아돌프 다이스만(Adolf Deissmann), 에른스트 폰 도프슈츠(Ernst von Dobschutz) 등에 의해 보다 발전되었다.

56)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54-55, 63.

57) 막스 베버가 신학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기에, 아래의 교회사 인물 사전에서도 그에 대해서 무려 168쪽에 걸쳐서 다룬다. 칼 바르트도 13쪽 분량으로만 소개하는 이 사전이 베버를 그렇게 길게 다룬 것을 보면 (물론 이런 단순한 비교만으로 두 사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베버가 신학과 교회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Friedrich Wilhelm Bautz ed, *Biographisch-Bibliographisches Kirchenlexikon*, Vol. XIII (Herzberg: Verlag Traugott Bautz, 1998), 405-572.

58)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54n3.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고대 교회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 이 학자들은 고대 기독교의 삶과 신앙과 신학적 요소 모두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30년 이래로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에 대한 사회학적 경향은 보다 발전했으며, 당시의 교회나 신학적 문제를 그 시대적 정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중요한 흐름을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들로는 그랜트(Robert M. Grant), 게이거(J. G. Gager), 말허비(A. J. Malherbe), 타이슨(Gerd Theissen), 레무스(Harold Remus) 등이 있는데, 에드윈 저지도 역시 이 학자군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들은 초기 기독교회와 그 신학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⁵⁹⁾

이 박사는 에드윈 저지와와의 만남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사적 접근(social historical approach)이 신약본문과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정황을 해명하는데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런 접근법을 자신의 초기 기독교사 연구에 접목시킴으로써 한국 학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박사는 이러한 사회사적 연구가 지닌 환원주의적 오류 혹은 신학과 신앙적 관점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그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였다. 이 박사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사회학적 접근법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59)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54-55n3.

3.2. 사회학적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 시도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에 실린 대부분의 글들이 사회학적 연구법을 교회사 연구에 접목시킨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 1부 “기독교의 형성”에 실린 논문들은 사회학적 접근법이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 수준 높은 저작들이다. 그 중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라는 두 논문을 살펴보자.⁶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저작은 제목부터 상당히 호기심을 자아낸다. 신약 시대와 초기 기독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우리의 성경 읽기와 초기 기독교 이해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베를린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아돌프 다이스만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층계급의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⁶¹⁾ 특히 그는 신약성경에 사용된 그리스어의 성격과

60)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53-72;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73-96. 그 외에도 “바울공동체의 사람들”, “노예제도와 기독교”, “초기 교회에서의 간호와 치유사역” 등도 사회학적 연구가 많이 가미되어 있지만, 위에서 다루었으므로 다시 다루지는 않겠다. 또한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의 확산,”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09-35와 “요세푸스는 초기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55-78과 “로마 역사가들은 초기 기독교를 어떻게 보았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79-300도 역시 사회학적 측면이 많이 부각되어 있으나 지면관계상 논의를 생략한다.

61) Adolf Deissmann, *Das Urchristentum und die unteren Schich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8)과 Adolf Deissmann, *Licht vom Osten: das Neue Testament und die neuentdeckten Texte der hellenistisch-römischen Welt* (Tübingen: Mohr, 1908)과 이 작품의 영역인 Adolf Deissmann, *Light from the Ancient East: The New Testament Illustrated by Recently Discovered Texts of the Graeco-Roman World*, trans. Lionel R. M. Strachan (Grand Rapids: Baker, 1965)를 보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60n16에서는 Deissmann, *Das Urchristentum und die unteren*

문학형식을 통해 볼 때, “신약성경은 중하층 사람들에 의해 중하층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약의 많은 부분이 동시대의 세속 문학에서 발견되는 보다 세련된 고전적인 언어양식을 결여한 채 대중적인 평범한 양식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⁶²⁾ 다이스만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 공산당 혁명의 여파와 약자를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계의 분위기로 인해서 널리 수용되었고, 이후 50년이 넘도록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⁶³⁾

그런데 그 확고했던 다이스만 테제에 반기를 든 학자가 에드윈 저지였다. 그는 1950년대 초중반까지 확고부동한 진리로 인식되어 오던 다이스만의 주장이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지는 먼저 1세기 바울공동체나 초기 기독교에 대한 논의에서 ‘사회 계급’(social class)이라든가 ‘교회와 국가’(church and state)와 같은 사회분석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회와 국가’ 개념은 4세기 이후 발전된 개념이고, ‘사회계급’ 개념은 19세기 이후 콩트(A. Comte)에 의해 비롯된 사회분석 모델에서 이론화되었기 때문이다.⁶⁴⁾ 오히려 저지는, 로마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으나 그동안의 연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우의(amicitia)와 후견인-가속인의 의존 관계(clienteia)”의 중요성을 지적했다.⁶⁵⁾ 그리하여 그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Schichten 이 Deissmann, *Light from the Ancient East*로 번역되었다고 하나 이는 오기(誤記)이다.

62) Deissmann, *Light from the Ancient East*, 9-10;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61-62에서 재인용.

63)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62-63.

64)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64.

65) Edwin A. Judge, *The Social Pattern of the Christian Groups in the First Century: Some Prolegomena to the Study of New Testament Ideas of Social Obligation*, 1st ed. (London: Tyndale Press, 1960), 8, 49-60;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64에서 재인용.

절대 다수의 하층민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계층이 혼합된 집단(mixed community)이었으며, 이 집단은 후견인-가속인(Patron-Client) 관계에 따라 지도적 위치의 재정 후원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울의 선교활동을 후원해 준 것으로 추측되는 40여명에 대한 인물 분석(prosopography)을 통해 그들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교양 있는 사회적 엘리트였다.”라고 결론 내렸다.⁶⁶⁾ 그는 또 다른 40여명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바울공동체의 일원이었다고 봄으로써, “초기 기독교공동체는 절대 다수의 가난한 자나 하층민 중심의 집단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다양한 신분의 사람이 혼재해 있던 혼합된 공동체(mixed community)였다.”라고 주장했다.⁶⁷⁾

이상규 박사는 이후에 리드백(L. Rydbeck), 타이센(G. Theissen), 크라이시히(Heinz Kreissig), 행엘(Martin Hengel), 말허비(A. J. Malherbe), 믹스(Wayne Meeks) 등이 저지의 연구에 전적으로 혹은 큰 틀에서 동의하는 입장에서 연구물들을 발표했음을 지적하며, 이 박사 자신도 저지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적고 있다.⁶⁸⁾ 하지만 이 박사는 초기 기독교회가 계층상 다양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층의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저지 교수가 주장하긴 했으나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은 견해로서, 이 박사가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간취하게 된 견해라고 볼 수 있다.⁶⁹⁾ 아무튼 이 논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이 박사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다이스만의 견해를 더 이상 실효성을 지닌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는 저지의 견해를 바탕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다양한 신분의

66) Edwin A. Judge, “Early Christians as a Scholastic Community,” *The Journal of Religious History* 1, no. 3 (June 1961): 130.

67)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67.

68)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66-71.

69)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71-72.

공동체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 조화성을 이뤄왔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규 박사의 사회학적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가 더욱 독립적으로 진행된 논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라는 제목의 논문이다.⁷⁰⁾ 부제(副題)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논문은 첫 3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소와 예배를 가정교회에서부터 바실리카까지 추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집회처소에 대해서는 문헌학적인 연구와 고고학적인 연구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사회학자들의 연구가 가미되었는데, 이 박사의 논문은 이를 적극 활용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집회소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두라-유로포스(Dura-Europos)에서 발견된 것이다.⁷¹⁾ 1920년 발굴된 이 건물은 원래 주택이었으나 이후에 교회당으로 개축된 것으로 보이며, 옥조가 딸린 작은 세례실이 있어서 거기서 세례도 베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⁷²⁾ 이 건물은 주후 256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보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230년(칼 볼츠) 혹은 232년경(롤란드 베인턴)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⁷³⁾ 그렇게

70)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73-96.

71)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73.

72) 이것은 가정교회 형태의 집회소이다. 중요한 점은 가정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점인데, 이것이 미국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가 고안해 낸 “가정교회”와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의 가정교회는 독립된 교회로서 모든 기능을 다 했다. 그러나 최영기 목사가 말하는 가정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가정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평신도가 목사나 목녀가 되어 그 가정교회를 이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와 최영기 식의 가정교회를 쉽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필자의 주장이며, 이상규 박사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이 박사 역시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가정교회”가 침례교 목사에 의해 지원하였고 그것이 침례교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회중주의적 제도이며 장로교회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 11월 2일자로 코람데오닷컴에 올라온 그의 글 “교회사에서 본 가정교회”을 보라.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 (2017.7.31. 접속) 아래 각주 90도 역시 참조하라.

73)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74.

보자면, 이상규 박사의 글에 인용된 오시에크(Carolyn Osiek)와 발취(David L. Balch)가 주장하듯이 “적어도 첫 백오십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단지 필요한 경우에만 기존의 이용가능한 장소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브래들리 블루(Bradley Blue) 역시 “4세기 초, 곧 콘스탄티누스가 최초의 바실리카라는 교회당을 세우기까지 약 삼백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독립된 건물로서 교회당이나 예배 처소를 갖지 않고 가정집에서 회집하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유지되어왔다고 주장”했는데, 이상규 박사는 이를 긍정적으로 소개한다.⁷⁴⁾

리차드 크라우다이어머(Richard Krautheimer)는 주후 30년에서 313년 사이 즉, 기독교회의 설립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받는 4세기 초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처소는 세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고 주장했다.⁷⁵⁾ 첫 번째 시기는 대략 주후 150년까지로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소는 신자들의 가정집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대략 주후 150년부터 250년 사이인데 개인 주택을 개조하여 전적으로 집회소로 사용하는 시기였다. 세 번째 시기는 대략 주후 250년에서 313년까지로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한 바실리카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적이든 공적이든 큰 건물이나 홀이 집회소로 대두된 시기이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소는 개인의 가정집에서 개조된 가정집으로, 보다 넓은 홀이나 건물로, 그리고 바실리카 교회당으로 변천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⁷⁶⁾

특별히 이 박사는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domus ecclesiae)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⁷⁷⁾ 그는 에드윈 저지, 웨인 믹스, 아브라함 말허비 등과 여러

74) 이상규 인용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74를 보라.

75) R. Krautheimer, “The Beginning of Christian Architecture,” *Religious Review* 3 (1939), 144-59.

76)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75를 거의 그대로 요약했다.

신약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⁷⁸⁾ 그는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을 바탕으로 첫 기독교 공동체는 가정교회로 시작했다고 주장한다.⁷⁹⁾ 또한 고린도에도 하나의 지역교회와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고, 로마에도 적어도 세 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한다.⁸⁰⁾ 그리고 이 가정교회들은 서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연합되어 한 지역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본다.⁸¹⁾ 하지만 이 박사는 “한 지역 내에 가정교회들의 수나 가정교회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매우 빈약한 실정”임을 인정한다.⁸²⁾

2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집회소에 새로운 형태의 “가정교회”(domus ecclesiae)가 나타난다. 이것은 개인의 가정집을 수리, 확장 혹은 개조하여 전적으로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로서, 보다 편리한 회집과 예배를 위해 자연스럽게 발전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라-유로포스에서

77) “domus ecclesiae”(도무스 에클레시아이)는 문자적으로는 “교회의 집”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교회”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상규 박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78-79n15에서 “domus ecclesiae”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용어[domus ecclesiae]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Adolf [von] Harnack으로 알려져 있다. L. M. White, *Building God’s House in the Roman World: Architectural Adaptation among Pagans, Jews and Christians*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0), 154n36. 흔히 이 용어는 개인 가정집(private house church)에서의 회집에 이은 가정교회의 두 번째 단계를 칭하는 용어로서 가정집을 개조하여 전적으로 집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 경우의 가정교회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domus ecclesiae, oikos ekk[lesi]siae, titulus는 근본적으로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titulus는 특히 법률적인 용어였다.” (“ekk[lesi]siae”은 원본의 오기(誤記)를 수정한 것이다.)

78) Judge, *The Social Pattern of the Christian Groups in the First Century*, 36; Wayne A.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75-76; Abraham J. Malherbe, *Social Aspects of Early Christianity*, 2nd e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68-70을 보라.

79)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79.

80)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82-83.

81)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81.

82)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79.

발견된 가정교회가 이에 대한 증거이다. 이 가정교회는 두 개의 방 사이의 벽을 허물어 5.15m x 12.9m 크기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65명에서 7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⁸³⁾ 100년~150년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디다케』(Didache)가 보여주듯이 이 시기에 예배는 의식화되고 제도화 되었다.⁸⁴⁾

3세기 말까지는 여전히 개조된 가정교회가 중심을 이루지만, 주후 250년경을 지나면서부터는 별도의 집회소로서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주후 270년에서 303년까지 평화로운 시기동안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기에 그 필요에 의해 별도의 교회당들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3세기 중엽까지도 교회는 여전히 가정교회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가 이후 점차 별도의 집회소로서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⁸⁵⁾

그러다가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 칙령(313년)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중지되었고, 기독교회는 예배 처소와 묘지, 기타 재산을 돌려받게 되었다.⁸⁶⁾ 이때를 기준으로 예배당도 큰 변화를 겪는다. 즉,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예배당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개조된 가정집에 불과했으나, 콘스탄티누스와 그 후계자들이 건축한 교회당은 소위 ‘바실리카’(Basilica)라는 건축 양식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바실리카는 “벽으로 둘러 싸여 있는 직사각형의 초기 교회당 건축 양식으로서, 이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개방된 홀(hall)이 있고, 줄을 맞추어 기둥이 세워져 있는(列柱) 크고 화려한 건축 양식”이었다.⁸⁷⁾ 일반적으

83) Carolyn Osiek and David L. Balch, *Families in the New Testament Worl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35.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85에서 재인용.

84)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86. 하지만 『디다케』에 나오는 예배 설명들은 아마도 그 이전의 예배까지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85)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87-89.

86)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90.

87)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91.

로 315년경 ‘두로’에 세워진 바실리카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⁸⁾ 이상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⁸⁹⁾

주후 150년까지	150년-250년	250년-313년	313년 이후
신자들의 가정집에서 회집함	개인 주택을 개조하여 집회소로 사용함	별도의 집회소로서 교회당 건물이 건축됨	“바실리카”: 직사각형의 건축 양식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정교회들	‘두라-유로포스’의 가정교회(256년경 건축된 것으로 추정)가 대표적, 65명에서 75명 정도 수용가능	아직 발견된 유적지는 없는 실정인데, 아마도 교회당들이 파괴되어서 그럴 것임	315년경 ‘두로’에 세워진 바실리카가 가장 대표적

이상규 박사는 이상과 같은 연구에 두 가지를 덧붙이는데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의 안목을 보여준다. 첫째는 기독교가 외형적인 조직체로서 교회당을 갖게 된 것이 일종의 타락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룬 점이다. 그는 사치스런 교회당의 건축은 본래적 기독교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독립된 교회당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데 상당히 균형 잡힌 결론이라 생각된다.⁹⁰⁾ 둘째는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교회당의 건립을 다룬 것이다.

88) 워드-퍼킨스(J. B. Ward-Perkins)는 로마의 캘리안 언덕 위에 세워진 성 요한 라테라노(St. John Lateran) 교회가 초기 기독교의 전형적인 바실리카 형태로 건축되었다고 주장하며, 약 314년경에 건축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상규 박사는 두로의 바실리카를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92.

89) 이 도표는 필자가 만든 것이다. 여기서 후학들이 한 가지 연구할 주제는 250년~313년 사이의 예배당의 유적이 과연 없는가 하는 점이다.

90)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94. 이것은 최영기 목사가 제안하는 “가정교회” 모델과 이상규 박사가 교회사적으로 검토한 “가정교회”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각주 72와 그 안에 언급한 인터넷 글을 보라.) 이 박사는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정교회”들과 개인 주택을 개조하여 집회소로 사용했던 “가정교회”를 둘 다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전자의 “가정교회”는 “교회 안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형태라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의 “가정교회”는 개인 주택이 완전히 예배 처소로만 사용되고 세례까지 베풀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은 앞서 서양학자들의 사회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사를 접근해 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⁹¹⁾ 그는 또한 교회당 구조가 갖는 신학적인 의의 즉, 예배, 성찬, 교제의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에 대한 연구는 후일의 작업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것은 사회학적인 연구가 주지 못하는 부분을 짚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3.3. 사회학적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를 넘어서

이상규 박사는 사회학적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를 시도하였지만, 그러한 접근이 가지는 단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가 작성한 “초기 3세기 로마 제국 하에서의 박해와 순교”를 보면, 사회학적 관점에서 순교 역사를 접근하면 서도 그 한계를 뚜렷하게 지시하고 있다.⁹²⁾

현대 사회학자들 가운데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동기나 목적을 신학적으로 잘 파악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 후자에 속한 이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를 마조키즘(masochism)이나 죽음에의 동경(libido moriendi)으로 해석하는데, 이 박사는 이러한 현대의 사회과학자들의 견해가 가진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⁹³⁾ 이 박사가 보기에 그들은 “소위 ‘과학적’이라는 이름하에 순교자들의 진정한 동기를 곡해”하는

“최영기 목사가 제안하는 가정교회”와는 아주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91)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94-95.

92) “초기 3세기 로마 제국 하에서의 박해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59-82.

93)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52, 381. 이 박사가 비판하는 해석을 대표하는 현대 학자들은 Donald W. Riddle, Karl Menninger, Theodore Reik, E. R. Dodds, Arthur D. Nock, J. Gager 등인데, 그는 특히 사회과학자인 도널드 리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 주제와 관련한 리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 Donald W. Riddle, *The Martyrs: A Study in Social Control*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31), 64.

자들이다. 그는 캐롤라인 오시에크(Carolyn Osiek)의 연구를 힘입어, 그들의 견해는 시간적 간격도 고려하지 않고, 개념의 범주를 착각하고 있으며, 고대 문서의 기록 목적도 역시 무시하는 “커다란 오류”라고 강하게 비판한다.⁹⁴⁾ 이처럼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은 무조건적 맹종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학자적 안목 가운데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사회학적 연구가 성경을 고대문헌으로만 보는 태도와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경계했다.⁹⁵⁾ 하지만 그런 약점을 비판할 때에는 한 사회학자의 관점을 다른 사회학자의 관점으로 비판함으로써 논의의 공정성 역시 더하고 있다.⁹⁶⁾

때로는 사회학적 연구와 문헌학적 연구를 결합시키는 시도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회학적 연구만으로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를 접근할 때 생길 수 있는 맹점을 막아주고 있다. 한 예로, “초기 교회가 본 군복무와 전쟁”을 보자.⁹⁷⁾ 이상규 박사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군복무하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해 가면 갈수록 군복무를 반대하는 교부들의 가르침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즉, 주후 173년 이전에는 기독교인 군인(Christian soldier)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나, 점차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복무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교부들의 반대도 심해진다는 관찰이다.⁹⁸⁾ 이는 문헌

94)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증거’와 ‘순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82n38에서 이 박사가 긍정적으로 인용하는 오시에크의 문헌은 아래와 같다. 캐롤라인 오시에크, 『신약의 사회적 상황』, 김경진 역(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14.

95)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55n3 참조.

96) 이러한 비교 연구는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의 확산,”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09-35에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을 가늠할 때에도 잘 드러난다. 이 박사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비교하여 “300년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5백만-7백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앞 글, 227).

97) “초기 교회가 본 군복무와 전쟁,”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83-99.

98) George Kertesz, *Christians War & Peace: A Historical Survey from the First Century to 1985* (St Lucia, Qld: Broughton Press, 1989), 8; “초기 교회가 본 군복무와 전쟁,” 『초기 기독교

학적인 접근이다. 이어서 이 박사는 “군복무를 반대하고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보인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테르툴리아누스를 분석한다.⁹⁹⁾ 이때 그는 문헌학적이면서도 사회학적 접근을 모두 사용하여 테르툴리아누스의 입장 변화를 설명한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변증서』에서 신자의 군복무를 인정한다. 『변증서』는 “이교의 불신과 로마 제국의 물리적인 박해, 그리고 이교 철학자들의 기독교 비판에 대항하여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책”이다. “이교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리스도교의 비폭력적 특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 의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에 유의하면서 신자의 군복무를 인정”했다고 이 박사는 평가한다.¹⁰⁰⁾ 하지만 그 책에서도 역시 테르툴리아누스가 군복무를 인정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화주의적 관점을 보여주었다고 그는 평가했다. 계속해서 그는 테르툴리아누스의 후기 저술들, 곧 『우상숭배론』과 『화관론』에서는 군복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분명히 비판한 것을 지적한다. 이들 책들은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군복무 반대를 명시했다는 것이다.¹⁰¹⁾ 이처럼 이 박사는 사회학적 배경 하에서 문헌학적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의 다면적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 및 평가를 하자면, 이상규 박사는 에드윈 저지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에 사회학적 접근을 접목시켜 이 분야의 새로운 면모를 한국에 소개하고 스스로 개척했다. 그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다수의 하위층 사람들이 있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있는 공동체였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예배 처소 변화를 매우 세밀하게 추적하여,

와 로마사회』, 388.

99) “초기 교회가 본 군복무와 전쟁,”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90.

100) “초기 교회가 본 군복무와 전쟁,”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91.

101) “초기 교회가 본 군복무와 전쟁,”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92, 396.

주후 250년까지의 다양한 “가정교회”의 모습에서부터, 별도의 예배당 건물이 지어진 250~313년 사이의 시대, 그리고 바실리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콘스탄티누스 이후 시대를 잘 묘사하였다. 하지만 그는 사회학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서 신학적 고려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순교에 대한 연구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평회주의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접근에 문헌학적 연구를 가미하여 균형 잡히면서도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런 측면은 후학들이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연구방법론으로 평가된다.

4.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의 교회 중심적 성격

4.1. 이상규 박사가 경험한 교회들

교회사가가 갖고 있는 교회론이 그가 연구하는 자료와 방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상규 박사가 가진 교회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그의 작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박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모친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 교회가 “영주군 안정면(安定面) 용산동(龍山洞) 356번지에 위치한 대룡산(大龍山)교회”였다.¹⁰²⁾ 그는 또한 대구에 있던 메노나이트중고등학교에서 수학했다. 그 학교는 미국의 메노나이트교회의 사회봉사 기구인 MCC(Mennonite

102) “내가 살아온 날들(Apologia pro vita sua)”에서 인용함.

Central Committee)가 세운 학교였다. 그곳 학생들은 매일 30분씩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고, 하루 2시간씩 노동하게 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신앙교육은 장로교의 합동 혹은 통합 교역자가 담당했는데, 그가 수학할 당시 교목은 김이봉 목사(후일 상도교회 담임, 현 상도교회 원로목사)였고, 졸업할 무렵 부임한 이가 김진홍 전도사(현 두레교회 원로목사)였다. 그는 메노나이트학교에서 수학하면서 메노나이트교회의 정신(평화주의적인 화해와 연합, 검소한 생활, 제자도의 실천)을 실제 생활 속에서 배우게 되었다.¹⁰³⁾ 이후에 그는 함석헌, 안병무, 김재준의 사상을 접하기도 하였고, 장기려, 김광일의 모임에도 나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업화의 그늘에서 도시빈민층과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이타적인 삶의 방식, 사랑과 선행, 배품의 가치를 깨닫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내가 속한 고신교회와 그 신학을 존중했고, 그것을 나의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라고 고백한다.¹⁰⁴⁾

이상과 같이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몸담거나 접했던 교회들과 신학들을 살펴보면 이상규 박사는 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독교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그러면서 그는 “보편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에 대한 나름의 정리를 해왔는지도 모른다.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라는 테마가 된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매우 교회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그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 출석은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의미였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가 나의 삶과 학문 여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솔하게 술회한다.¹⁰⁵⁾

103) “내가 살아온 날들(Apologia pro vita sua)”에서 인용함.

104) “내가 살아온 날들(Apologia pro vita sua)”에서 인용함.

105) “내가 살아온 날들(Apologia pro vita sua)”에서 인용함.

4.2. 이상규 박사의 교회론의 정통적 성격

이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를 통해 본 교회론에서 나타나는 우선적인 특징은 그가 보편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도교부들의 가르침과 의의”와 “교회의 교사들”이라는 두 논문을 보면 이 점이 아주 잘 드러난다.¹⁰⁶⁾ 앞의 논문에서 이 박사는 교부들을 소개하는데, “8세기 중반까지 약 칠백 년 간 문필활동을 통해 교회의 전통과 질서, 신학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교부를 결정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째, 고대성 혹은 고전성(*competens antiquitas*), 둘째, 삶의 거룩성(*sancritas vitae*), 셋째, 교리의 정통성(*doctrina orthodoxa*), 넷째, 교회의 인정(*approbatio ecclesiae*)”이 그것이다.¹⁰⁷⁾

그렇게 하여 그는 교부학에 대해 소개하고, 사도교부, 변증가와 고대교부, 후기교부 중에 중요한 인물들을 차례로 소개한다.¹⁰⁸⁾ “교회의 교사들”까지 계속되는 이 부분은 약 40페이지 분량이지만 교부학 입문을 위한 아주 훌륭한 글이 된다. 이것은 이 박사가 고대 교회를 단지 역사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신학적 관점에서도 역시 고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별히 “다른 전통과 이단들”이란 글에서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났던 이단들을 일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보편적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⁹⁾

이 점은 그의 글 “몬타누스파의 거짓계시 운동”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106) “사도교부들의 가르침과 의의,”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15-36; “교회의 교사들,”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37-56.

107) “사도교부들의 가르침과 의의,”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15-16.

108) “사도교부들의 가르침과 의의,”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15-36. 이 글은 “교회의 교사들,”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37-56까지 연결된다. 흥미롭게도 앞의 글은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006년 가을호에 발표했고, 뒤의 글은 2010년 봄호에 발표했다. 내용상 연결되는 글인데, 4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 사뭇 놀랍다.

109) “다른 전통과 이단들,”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57-74.

수 있다.¹¹⁰⁾ 한편으로 그는 “교회사에서 나타난 모든 이단운동들은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신자의 생활에서도 성결이나 구별된 사람, 윤리성 등을 강조한다.”라고 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이단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 그 이단이 제기한 긍정적인 문제의식을 또한 살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¹¹¹⁾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지만 그들[이단들]의 이단적 교리와 오도된 가르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알버트 뉴만(Albert Henry Newman)¹¹²⁾이 몬타누스파에 대해 도덕성과 평등성을 증진하고자 했던 분파라고만 평가한 것과, 필립 샤프가 몬타누스 운동의 과도한 금욕사상, 윤리적 엄격성만을 지적한 데 그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보다 더욱 심각한 이단적 성격, 곧 이들의 거짓계시 운동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였다.¹¹³⁾ 이것은 이 박사가 가진 정통 신앙에 따른 교회관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의 마지막인 제 4부에 실린 3개의 논문들 즉, “니케아 회의와 기독교론 논쟁”, “니케아 회의 이후의 기독교론 논쟁”, “칼케돈 회의의 기독교론과 그 이후의 논쟁”은 당시의 복잡한 논의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의 어떤 교리사 책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의 훌륭한 연구이다.¹¹⁴⁾ 그러면서도 그는 정통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짚어주고 있다. 이어지는 논문이자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의 제일 마지막 논문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교부였을까?”에서도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신약성경 이

110) “몬타누스파의 거짓계시 운동,”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01-18.

111) “몬타누스파의 거짓계시 운동,”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17-18.

112) 알버트 뉴만(1852-1933)은 종교개혁기의 재침례파 역사 연구에 기여한 미국 교회사가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인 인터넷 재침례파 사전, gmeo.org에서 얻을 수 있다.

113) “몬타누스파의 거짓계시 운동,”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17.

114) 이런 견해는 권평, “기독교 이해의 길라잡이: 이상규의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에서도 동의하는 바이다.

후 종교개혁까지의 기독교 사상사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자 “그에 의해서, 서방의 신학이 종합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의 핵심을 비교적 소상하게 정리해 주는데 이 또한 이 박사가 가진 보편신앙에 대한 견해를 엿보게 하는 연구이다.¹¹⁵⁾ 이처럼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우리는 그가 가진 교회론의 정통적 성격 즉, 성경적이며 보편교회적인 특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¹¹⁶⁾

4.3.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와 한국교회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의 마지막 특징으로서, 그의 연구는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덧붙이고자 한다. 박용규 교수는 “이상규 교수를 교회를 위한 신학자라고 부르고 싶다. 이상규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철저히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그의 모든 저술과 작품들 이면에 담겨진 한국교회에 대한 애증을 독자들은 어렵지 않게 읽어낼 것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¹¹⁷⁾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에도 역시 한국교회를 위한 작품임을 독자들은 쉽게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라는 글 말미에 나오는 한국교회의 예배당 구조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사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완결된 논문을 이루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러 넣은 것이다. 이것은 그가

115)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교부였을까?”,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451-71.

116)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25, 170, 304 등에서 보듯이, 이상규 박사는 “catholicism”을 “공교회주의” 혹은 “보편교회적 성격”이라고 번역하면서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교권주의에 빠진 교회의 형태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공교회성” 혹은 “보편교회성”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정통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117) 박용규, “교회사가 이상규 교수의 학문세계,” 18. 박용규 교수는 “애증(愛憎)”이라고 표현했으나, 필자가 보기에 이상규 박사의 글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증(憎)”보다는 “애(愛)”가 더욱 자주 나타난다.

독자들로 하여금 단지 서구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그만큼 한국교회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로마의 종교적 상황”에서 이 박사는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한국의 종교적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¹¹⁸⁾ 그는 기독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선교 초기 당시 기존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일종의 종교적 진공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던 선교사 게일(Gale)의 분석을 받아들인다.¹¹⁹⁾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성공에는 ‘일제하의 상황’이라는 역사적 환경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기독교가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일종의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를 형성했고, “이런 점들이 종교적 다원사회에서도 기독교를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이다.¹²⁰⁾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의 기독교가 가진 배타적 의식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 그는 이진구의 연구에 의존하여, 1920년대까지 초기의 한국 기독교가 배타성을 가진 이유는 첫째, 계시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이 갖는 고유성에 대한 확신과 둘째, 근대문명을 창출한 ‘문명의 종교’라는 독특성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본다.¹²¹⁾ 그는 이런 점을 서양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와 비교하면서 종교다원적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이 논문 말미에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문헌 속에 전도에 대한 목회적 권고가 없었는데도 기독교가 호소력을 지니고 넓은 지역으로 전파된 것은, 메노나이트 학자인 알란 클라이더(Allan Kleider)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과 사랑의 실천 때문”이라고

118) “그리스-로마의 종교적 상황,”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77-81.

119) 캐나다인 게일은 한국문화를 연구하여 한국학을 개척한 선교사로, 부산에서 1년 6개월간 사역했다.

120) “그리스-로마의 종교적 상황,”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78.

121) 이진구, “근대 한국개신교의 타종교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호(1995), 135; “그리스-로마의 종교적 상황,”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80-81.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로마 제국의 종교적 상황과 ‘종교의 자유’”에서도 역시 종교다원주의적 상황을 살아가는 한국의 신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획득하는 데 혈안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정치적이고 평화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세상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을 암시한다.¹²²⁾

몬타누스파와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을 비교하는 부분이나, “그러한 거짓계시 운동은 역사의 변혁기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영적 침체가 가중될 때 일어났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은 이단의 발흥에서부터 한국교회에 경고를 주고자 함이다.¹²³⁾ 또한 한국 신학의 서방 신학적 성격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서방교회에서는 교회의 정통성이나 법적 전통(法統)이 주된 논쟁점이었다. 이로 보건대 ... 서방은 행정적이고 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무래도 로마법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통이 서구와 독일과 일본, 그리고 오늘의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교회와 사회가 가진 특징 및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¹²⁴⁾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성경적이고 보편적·정통적인 교회론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한국교회를 위한 연구임을 잘 보여준다. 그의 교회론은 지엽적이거나 교단에 종속되지 않고, 신약성경에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보편적인 정통교회를 표방한다. 그것은 교부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이단을 배격하며, 보편적 공의회의 결정들을 존중하는 교회관이다. 동시에 그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초기 기독교 연구에 나타나는 방법론이나 대화하는 상대나 다루는 이슈는 서양 학자들의 그것이 주류를 이루지만, 그 적용과 교훈은 언제나 한국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뤄진다. 이처럼 이 박사의

122) “로마 제국의 종교적 상황과 ‘종교의 자유,’”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21, 335.

123) “몬타누스파의 거짓계시 운동,”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05, 318(인용문).

124) “니케아 회의와 기독교론 논쟁,”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405-6.

연구는 서구신학의 광맥을 추적하지만 그것이 결국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그는 서구신학 전통에서 한국교회를 읽고, 한국교회의 눈으로 서구신학을 헤아림으로써 독창적인 교회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보편교회를 지향하면서도 한국교회를 위한 “교회 중심적”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나오면서: 이상규 박사와 고신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박용규 교수는 이상규 박사의 학문세계를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상규의 모든 작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저 학문의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저술을 하거나 논고를 출간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 그의 신학이나 가르침이나 저술이나 모두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자신의 학문을 세워가려고 하였다. 복음의 순수성을 늘 염두에 두었고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으며, 교회가 세상에서 문화와 사회에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하였다. ...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 점에서는 이상규에 대한 다른 신학자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¹²⁵⁾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를 살펴본 본 논문의 결론 역시 박용규 교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는 이 박사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가 성경 중심적이며, 사회학적이며, 교회 중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는 성경의 내용을 풍성하게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경적 신앙을 가지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성경 중심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또한 철저하게 학문적이기도 한데, 특별히 현대 사회학적 연구를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와 접목시킴으로써 매우 큰 학문적 성과를 내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연구는 다만 상아탑에 갇혀 있지 않고 교회 현장에 매우 큰 유익을 주는데, 그것은 그가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관 위에 서서 정통 교부들의 신학을 소개하고 이단들의 오류를 지적하며, 동시에 그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유익한 적용점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면서 필자가 이상규 박사에게 대해 느끼는 바를 고신교회에 속하여 함께 동역하는 후배 교수의 입장에서 조금 덧붙이고자 한다. 고신대학교에서 필자의 연구실은 그의 연구실 바로 곁에 있다. 그는 강의나 설교 등 외부 사역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킨다. 연구실 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은 그가 안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이런 성실성은 후학들에게 그 자체로 도전이 된다. 은퇴를 곧 앞두고 있는 선배 학자가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는데 어떻게 후배인 내가 적당히 일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그는 언제나 친절하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격려는 누구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 준다. 그가 남긴 미담(美談)은 너무 많아서 여기 다 적을 수가 없다. 동시에 그는 학문적인 자리에서는 언제나 엄격함을 잃지 않았는데 사실 이 점은 타인을 향한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기반성적 철저함에 기인(基因)·귀착(歸着)하는 것이었다.

125) 박용규, “교회사가 이상규 교수의 학문세계,” 17-18.

그의 학문과 신앙이 가진 성경 중심적 성격, 성실하고 엄격한 연구 자세, 교회를 사랑하는 애뜻한 마음, 타인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 이 모든 것을 필자는 고신정신의 핵심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를 중심으로 그를 평가하자면, 그는 고신대학교가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에 따라 산(우리가 서 있는 세계;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과 바다(열린 세계; 새로운 동향)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신학을 하는 고신신학의 장점을 아주 탁월하게 드러내 보여준 신학자이다. 이상규 박사, 그는 고신의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선생이다. (*)